

한국 문화 리터러시 교육 자료로서의 소설 『마당깊은 집』 읽기* - 한국의 관념문화를 중심으로 -

차 윤 정**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마당깊은 집』에 나타난 한국의 관념문화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소설 『마당깊은 집』을 한국 문화 리터러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작품에 나타난 한국의 관념문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마당깊은 집』은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기 속에서 주인공인 어린 길남의 시선으로 가족과 공동체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 속에는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변화가 교차하며 형성된 한국인의 다양한 관념문화가 담겨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관념문화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장자중심주의, 교육열, 근면·성실·인내의 정신, 상부상조 의식, 그리고 이념적 갈등이 주요 관념문화 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정신적 기반이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정신적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를 통한 문화 리터러시 교육은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인의 사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greencha@pusan.ac.kr)

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문화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마당깊은 집』은 전쟁 직후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인의 생존과 공동체의 윤리가 맞물려 형성된 한국인의 관념문화를 드러냄으로써,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내면적 논리와 정서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 리터러시 교육의 자료로서 그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마당깊은 집, 문화 리터러시, 관념문화, 한국문화, 문학 작품

1. 서론

최근 들어 한국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적 부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한국 사람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K-팝, K-드라마 같은 K-콘텐츠의 소비를 넘어 ‘한국’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욕구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 한국 방문 및 유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구체화 되고 있다.¹⁾ 한국 문화에 대한 앓의 욕구가 증가 하는 가운데, 단순히 여행이나 의사소통적 필요성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알고자 했던 과거와 달리, 한국 문화의 내면적 의미와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학생들 가운데는 한국학을 전공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한층 더 깊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1) 교육부는 올해(2025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5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9월 25일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1.3% 늘어난 수치다.

<https://www.news1.kr/amp/society/education/59244444>(검색일: 2025.11.14.)

필요해졌다.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단순한 언어 능력 함양을 넘어서, 학습자의 문화적 이해와 해석 능력, 그리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실행 능력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강조되는 것이 문화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이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목표를 감안할 때, 한국 문화교육의 의미는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화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 리터러시는 단순히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현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한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 리터러시 교육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 문화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소설 『마당깊은 집』을 선정하여, 그에 나타난 한국의 관념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 작품은 그 작품이 창작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생활상, 가치관 같은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특히 『마당깊은 집』은 한국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행위 등이 변화하는 모습과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문화를 단편적 지식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화 리터러시 교육에 의미가 있다. 특히 관념문화와 같이 비가시적인 문화는 상황과 함께 제시될 때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 속의 한국 문화 가운데는, 전통문화로 남겨진 것들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화들도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한국 문화를 통시적으로 아우르며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마당깊은 집』를 대상으로 그에 나타나는 한국 문화 중, 관념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²⁾

2. 이론적 배경

2.1 문화 리터러시 개념과 문화 범주

1) 문화 리터러시의 개념

한국어교육에서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문화가 생산되고 교류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언어의 이해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넘어 그 사회의 문화가 함께 중요시 되는 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그 사회에서 언어만을 따로 분리해서 배울 수 없다.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문화를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교육은 언어 교육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중요한 교육 분야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문화교육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는 문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문화 리터러시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학 텍스트나 광고, 사진, 영화 등을 활용한 문화 리터러시 교육 방안이나 글쓰기, 관용어 교육을 통해 문화 리터러시를 신장시키는 교육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³⁾

문화 리터러시는 허쉬(Hirsch, 1987)가 처음 언급한 용어이다. 허쉬는 어

2) 『마당깊은 집』은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피난민들의 언어를 사실적으로 재현(등장인물의 대화에 방언)하고 있어, 한국어능력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들이 문맥 속에서 방언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지만, 방언 사용이 많은 부분은 교수자와 함께 강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김혜정·윤영, 「문화 리터러시를 통한 문학 텍스트 해석: 화본소설 〈玉堂春落難逢夫〉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6), 한국 문화융합학회, 2021; 김영순·박지선, 「민주시민교육과 미디어 문화 리터러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1(1),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6; 정지현, 「포토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리터러시 경험의 의미」, 『교육문화연구』 23(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배운정, 「외국인 학부생들의 글쓰기 활동을 통한 문화 리터러시 교육」, 『문화와 융합』 44(1), 한국 문화융합학회, 2022; 공하림·손혜진, 「문화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에 관한 고찰」, 『문화와 융합』 42(5), 한국 문화융합학회, 2020.

편 집단은 그 집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선택하는데, 이는 문화 공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문화 리터러시를 특정 문화권 내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된 지식의 총체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⁴⁾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김혜진(2014)은 문화 리터러시를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는 한 사회 공동체의 정보, 지식, 맥락에 대한 이해⁵⁾로 보았으며, 김완실(2018)은 문화 리터러시를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소양으로 보고, 문화 리터러시 요소로 문화 지식, 해석·비판 능력, 소통 능력을 들었다.⁶⁾ 박인선(2020)은 한국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행위와 능력⁷⁾이라고 보았다. 김혜정, 윤영(2023)은 문화 리터러시를 자문화와 타문화의 문화적 지식을 이해하고 전통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며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보고, 이에 창조성과 실천성의 개념을 적용해 한 사회 공동체의 문화적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⁸⁾ 이렇게 볼 때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리터러시 개념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된 지식의 총체라는 허쉬의 개념을 넘어, 그 지식을 주체적으로 실천하고 창조하는 능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 문화 리터러시를,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는 문화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문화

4) Hirsch, E. D.,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5) 김혜진,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실행 연구」, 『문화와융합』 43(9), 한국 문화융합학회, 2021.

6) 김완실, 「한국문학 작품을 통한 문화 문식력 향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8.

7) 박인선, 「문화문식력 향상을 위한 문화코드 연구」, 『동악어문학』 82, 동악어문학회, 2020.

8) 김혜정·윤영, 「한국어 학습자 대상 문화 리터러시 기반 설화 교육 방안 연구」, 『리터러시연구』, 14(2) 2023, 71쪽.

적 삶(생활)을 실천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범주

문화 리터러시 교육의 출발점은 그 사회의 공유된 문화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지식의 체계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범주화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해영(2000), 조항록(2004), 박영순(2006), 권오경(2009) 등이 있다. 이해영(2000)은 문화를 언어, 생활양식, 가치관, 지리, 제도, 역사, 성취 문화로 범주화⁹⁾하였으며, 조항록(2004)은 문화를 의식주, 일상생활, 민속, 역사, 사상문화, 관념과 가치관, 제도, 예술, 문학으로 범주화하였다.¹⁰⁾ 박영순(2006)은 정신, 언어, 예술, 생활, 제도, 역사, 자연 산업기술, 학문, 문화재로 분류하였으며,¹¹⁾ 권오경(2009)은 성취, 행동, 관념 문화로 구분¹²⁾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가 결과적 산물로서 존재하는가, 행위로 존재하는가, 인식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문화의 존재 양태에 따라 한국 문화를 성취문화와 행동문화, 관념문화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의 범주를 문화지식 중심의 성취문화, 문화행위 중심의 행동문화, 문화인식 중심의 관념문화로 범주화한 권오경(2009)의 논의와 결을 같이 한다.

성취문화는 인간이 이룩한 산물로서의 문화를 가리키며, 인간이 이룩한 유, 무형의 모든 업적물과 의·식·주, 여가생활 같은 생활문화와 예술문화, 제도문화, 문화재, 과학기술문화, 학문, 물질문화 등이 포함된다. 행동문화에는 언어 행위와 준언어 행위, 비언어적 행위(일상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 관

9) 이해영,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외국어교육』 7(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0, 413~414쪽.

10) 조항록,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211~212쪽.

11) 박영순,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론 한림출판사』, 2006, 36~38쪽.

12)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5(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54~61쪽.

념문화는 그 집단의 가치체계나 정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족성, 세계관, 가치관, 정서, 사상, 종교(관), 민간신앙 등이 포함된다.¹³⁾ 그런데 관념문화는 비가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교육 시,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관념문화를 교육할 때는 이와 관련 있는 상황이나 다른 범주의 문화들과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문화 리터러시와 문학 작품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은 문화 리터러시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문화교육 자료로서의 문학 작품의 가치에 대해, 윤여탁(2013)은 문학 작품은 그것이 창작되었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보고로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은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언어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이해를 넘어 고급 언어 사용 교육으로 나갈 수 있다¹⁴⁾고 보았다. 오지혜(2010)는 문화가 특정 사회 공동체의 사고에 기반한 산물이라면, 문학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 지식을 습득, 경험하고 태도를 함양하는 양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비평적으로 읽고, 쓰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문식력 향상을 위한 실천 방법이라고 하였다.¹⁵⁾ 김완실(2018)은 문학 작품은 한국 전통 사회의 배경과 관습, 가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 문화를 자신의 문화적 토대 위에서 해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한국 문화의 정서를 이해하고, 미적 아름다움을 공유함으로써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¹⁶⁾ 이처럼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은 넓게는 문화교육에 도움이 되며 문화 리터러시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이 문화 리터러시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학 작품은 특

13) 권오경, 위의 논문, 56쪽.

14) 윤여탁,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149~176쪽.

15) 오지혜, 「한국어 학습자의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위한 문학 제재 연구 - 현대 시 작품을 중심으로-」, 『시학과언어학』 18, 시학과언어학회, 2010.

16) 김완실, 위의 논문.

정 사회와 공동체의 사고와 가치, 경험이 집약된 산물로서 문화교육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문학은 단순한 언어 예술의 차원을 넘어, 한 사회가 지닌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을 활용한 교육은 단순히 언어적 기능을 습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한국 사회와 문화의 내면적 구조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문학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배경은 학습자에게 그 사회의 전통과 관습, 제도과 가치체계에 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의 이해를 통해 학습자는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며, 이는 문화 리터러시의 기초가 된다.

문학 작품은 학습자가 자국의 문화적 토대 위에서 한국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는 작품 속 인물이나 사건을 자국 문화의 맥락과 비교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독자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문화 지식의 습득을 넘어 그것을 해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는 문화 리터러시의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또한 문학 작품은 한국인의 정서와 미적 감각을 이해하고 공유하게 하는데, 이는 학습자의 언어적 소통 능력은 물론 문화적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작품 속에 드러난 갈등과 화해 그리고 다양한 정서는 학습자에게 언어적 지식 이상의 공감과 감동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치와 감정을 체화할 수 있다. 학습자는 단순히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서적이고 미적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이는 문화교육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은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학 속에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 상징적 언어가 담겨 있어 학습자가 고급 수준의 언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언어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문학 작품은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은 한국의 역사, 언어, 행동, 가치, 정서, 종교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 요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다. 이는 곧 문화의 여러 범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 요소를 하나의 서사 속에 담아냄으로써, 학습자가 문화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인 문화 지식을 실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문학을 통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그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 리터러시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마당깊은 집』에 나타난 한국의 관념문화

3.1. 작품 개관

『마당깊은 집』은 작가인 김원일의 자전적 소설로 한국 전쟁 직후 대구 장관동의 마당깊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소설에서는 마당깊은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린아이인 길남의 시선으로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전쟁 직후의 한국 사회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당깊은 집』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길남은 어느 날 대구 장관동의 마당깊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된다. 이 집에는 주인집과 세 들어 사는 다섯 가구, 모두 여섯 가구가 살고 있다. 이 중 길남의 가족을 포함하여 네 가족이 한국 전쟁 당시 대구로 피난 온 사람들이다. 주인공이자 집안의 장남인 길남은 삼바느질로 가족을 부양하는 어머니를 도와 신문 배달을 하며 돈을 벌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길남은 누나와 동생은 학교를 보내면서 자신은 학교도 보내지 않고, 집안의 장남임을 강조하며 유독 자신에게만 가혹한 어머니에 대해 그 사랑을 의심한다. 그러던 중 주인집 크리스마스파티를 구경한 일로 길남은 어머니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고 가출하게 된다. 역으로 찾아온 어머니를 따라 귀가한 길남은 예전보다 열심히 어머니를 돕는다. 얼마 뒤 마당깊은 집에서 같이 살던 정태가 월북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되고, 아래채를 허물겠다는 주인집의 결정에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마당깊은 집은 허물어졌

고 그 자리에 이층 양옥집이 들어서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길남은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어렵던 시절 같이 살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한국전쟁 직후이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으며 막대한 물질적 손실과 함께 한국인들은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소설에서는 전후 한국 사회의 빈곤과 이산, 사회적 갈등과 불안 등을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처가 오늘날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설에서는 이 시기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당시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난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인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작품에 그려진 당시 한국인들의 생활상 속에는 한국인들의 인식과 가치는 물론,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문화와 언어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나타나 있다. 특히 소설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함께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한국 문화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당깊은 집』은 과거의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마당깊은 집』은 다양한 한국 문화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한국인의 가치체계 같은 관념문화를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전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가치와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인물과 서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의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전쟁 직후라는 점도 문화 리터러시 교육에 활용도가 높다. 전쟁은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끊이지 않는 사건이다. 전쟁의 경험은 한국만의 특수한 경험을 넘어 인류 보편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마당깊은 집』을 통해 드러나는 시대상과 문화의 변화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로도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마당깊은 집』은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다양한 나라들의 경험을 함께 성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화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 『마당깊은 집』에 나타난 한국의 관념문화 분석

1) 장자중심주의와 장자의식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유교적 가치관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장자' 중심의 가족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장자중심주의란 가계 계승과 제사, 재산 분배, 가족 내 권위 구조에서 장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는 관념이다. 유교적 가부장제 속에서 장자는 단순한 맏아들을 넘어 가문의 명맥을 잇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제사 계승, 부모 봉양과 가족 부양의 책임 같은 도덕적 의무를 부여받았다. 전통사회에서 장자 중심주의는 가족 내부의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적 질서를 뒷받침하는 문화로 작동하였다.¹⁷⁾ 장자중심주의 문화 속에서 장자는 장자로서의 의식을 갖도록 교육된다. 즉 장자로서 가문을 계승하고 부모와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교육된다.

소설에서 길남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가족의 장남으로 성장한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은 궁핍과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길남은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에서 장남에게 기대되는 장자 의식, 즉 장자로서의 책임감과 가족 부양 의식, 희생의 가치를 갖도록 교육받는다. 길남의 장자 의식은 어머니의 훈육을 통해 형성된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장자로서의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며, 어린 길남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어머니에게 요구받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1) “길남아, 내 말 잘 듣거라. 너는 인자 애비 읊는 이 집안의 장자다. 가난하다는 기 무슨 편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열매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제? 난리 겪으며 배를 철철 굶을 때, 니가 아무리 어렸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 설움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 끼

17) 최재석, 『한국 초기사회학과 가족의 연구』, 일지사, 2002, 262~263쪽.

다. 오직 성한 몸뚱이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라 카모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 … 너는 니대로 우짜든동 힘자라는 대로 노력해보는 길밖에 더 있겠나. (31~32).¹⁸⁾

2) “길남아, 그 팔십 환으로 신문을 받아서 팔아봐라. …니 힘으로 돈벌이 해보고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끼다. 이 세상의 쓴맛을 알라 카모 그런 갱험이 좋은 약이 될 테이께. 초년 고생은 돈 주고 도 몬 산다는 속담도 있느니라…”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용이 박힌 말이였다. (33~34)¹⁹⁾

3) “너는 이 집안 장자 아인가. 니가 참아야제.” 가장 안쪽에 누운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힘든 일은 내게 시키고 그 이유는 이 집안 떠맡을 장자란 데 있었다. …때질만 해도 어머니는 내게만 유독 극악을 떨었고, 어렵고 힘든 일은 여투어두었다 내게 맡겼다. 나 혼자 진영에 떨어뜨려둔 것도 당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았고, 대구로 올라왔으나 학교에도 보내주지 않고 신문팔이를 시킨 일도 따지고 보면 서럽지 않을 수 없었다. (137~38)

4) “넌 학교를 다니지만 나는 어디 그럴 형편이 되니. 당장 내가 안 별면 세 식구가 굶구 어머니 약값은 누가 대. 신문 배달이란 … 그게 어디 중뽀난 기술이라두 되니. 나이 먹어 배달 자리두 떨러나게 되면 내 꼴이며 집안이 뭐가 되겠니. 그래서 마침 일자리가 난 김에 인쇄소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인쇄 기술자가 될 테야.” (215)

1)은 어머니가 길남이 가장이 부재하는 집의 장남임을 강조하면서, 위채 학생들보다 갑절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2)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깨우치라고 길남을 세상 밖으로 내모는 상황을 보여준다. 어린 장자에게 아버지 없는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장자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3)에서 어머니는 누나와 동생은 학교에 보내면서 자신은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신문팔이와 장작패기 같은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힘들다는 장자의 말을 묵살한다. 어머니는 길남에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장자의 책임감을 심어주고자 한다. 1~3)을 통해 길남을 혹독하게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길남에게 장자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데 있음

18) 김원일, 『마당깊은 집』, 문학과지성사, 2002, 인용 쪽수.

19) 이 부분은 근면, 성실, 인내의 관념문화가 담긴 예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을 알 수 있다. 4)에서는 또다른 어린 가장 ‘한주’가 야간 중학교라도 가기 위해 돈을 모으지만, 집안을 위해 진학을 포기하려 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미루고 신문팔이 등 노동에 참여하는 길남이와 진학을 포기하고 인쇄소 기술자가 되려는 한주의 모습은 장남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자, 가족 부양의 의무가 개인의 성장보다 우선시되었던 한국의 장자중심주의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장자에게 부여되는 가족 부양과 책임 의식은 길남의 경우처럼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한주의 경우처럼 특별한 교육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주의 경우를 볼 때, 이러한 장자의식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주가 자연스럽게 전통적 장자중심주의 문화를 학습하게 된 것은 당시 사회에 그러한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자중심주의 문화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 많이 약화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제사나 부모 봉양에 대해서는 그런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2) 교육열

전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경제적 기반을 잃고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한국인들에게 가족과 개인의 생존전략이자 사회적 신분 상승의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교육은 단순한 개인의 학문적 성취를 넘어, 가난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희망의 통로’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전쟁 이후의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한국인들이 개인과 가족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배움’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전쟁으로 재산과 삶의 기반을 잃은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유일한 재산’으로 간주하며, 생활고 속에서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헌신했다. 당시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과 교육열은 이 소설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5) “이 애미가 죽을 마디가 나더라도 너그만 공부 열심히 하모 학교는 남들이 시키는 만큼 시킬 까다.” 대구에 온 날 앞에 앉혀두고 어머니가 맹

모삼천지교의 일화를 들려준 뒤 했던 말이다. … 어머니는 당신 말대로 ‘어짜든동 애새끼 넷을 믹이고 공부시킬라고 뼈마디가 내려앉도록’ 새벽부터 자정까지 손 재워놓을 틈 없게 재봉틀을 돌렸다. (11~14)

6) 우리 삼 형제는 어머니가 일손을 놓을 때까지 한 방 안 자기 자리 차지 하고 앉아 꼼짝 않고 무슨 책이든 펼쳐 공부를 해야 했다. 누가 졸기라도 하면 어머니 옆에 놓인 박달나무자가 사정없이 어깨죽지를 내려쳤다. (76)

7) 어머니가 자식에게 “니 다음에 커서 이 예미한테 효도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 어무이 젊을 때 우리 믹이고 공부시킬라고 눈 너무 버렸으이 눈에 좋다 카는 이 약 드이소 하고 눈에 좋다는 약이나 사 온나.”(125)

에서 어머니는 ‘뼈마디가 내려앉도록’ 일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킨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생계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부모 세대는 자녀 교육을 유일한 희망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죽을 마디가 나더라도 공부를 시키겠다’는 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모성애의 표현이 아니라,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맹모삼천지교’의 일화를 언급하는 장면은 ‘공부를 통한 출세’가 가족 전체의 목표로 전환된 것을 보여준다. 이는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곧 가문의 재건’이라고 인식되었던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어머니의 노동은 단순한 생계유지가 아니라, 자녀의 교육을 위한 헌신적 투자이자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마당깊은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도 모두 자녀 교육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

8) 미선이 누나는 미 8군 피엑스에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교복으로 옷을 갈아입곤 학교로 갔다. 그녀는 야간고등학교에서 전쟁으로 놓친 때 늦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25)

9) 셋째 방은 평양댁 가족이 살았다 모두 네 식구였다. 경기댁보다 나이가 서너 살 아래인 평양댁은 양키 시장에서 현 군복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 … 여드름이 울긋불긋 난 둘째아들 민이형은 경북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었다. (19~20)

8)의 경기택 딸 미선이 누나가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전쟁으로 학업이 단절 되었으나 ‘뒤늦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복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9)의 평양택 아들 민이형이 ‘경북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라는 점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명문학교 진학이 곧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현실을 반영한다. 현 군복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층조차 자녀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경북고등학교’라는 구체적인 학교명을 제시한 것은 학벌을 중시하던 당시의 한국인의 의식과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마당깊은 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길남의 친구인 한주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0) 한주는 황해도에서 피난온 아이였는데 나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껌과 신문을 함께 팔고 다녔다. 나도 내년이면 야간중학교라도 갈테야.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한주는 그런 말로 자신의 다짐을 나에게 확인하곤 했다. (77)

아버지가 전사했고 아우들은 피난길에 추위와 주립으로 죽었다는 사연을 가진 한주는, 어린 가장으로 편찮으신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아야 하지만 꼭 야간중학교라도 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야간중학교라도’라고 표현한 데에는 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주가 자신의 결심을 ‘나에게 확인하곤 했다’는 대목은, 교육열이 어른 사회뿐만 아니라 아이들 집단 내에서도 공유되는 가치로 내면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단순히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자녀들 사이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나 목표처럼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길남과 한주로 대표되는 아이들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의 결핍을 공감하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였다.

이처럼 전쟁 직후의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도 오직 ‘배움’을 통해 삶을 다시 세우려는 강렬한 교육열이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교

육은 단순한 개인의 욕망을 넘어, 가난과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생존 전략이자 가족 전체의 목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교육열은 현대에도 중요한 한국 문화 중 하나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신분상승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소설에서 보여주듯이 전쟁 후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려고 한 한국인들의 의식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3) 고난 극복의 정신: 근면, 성실, 인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극복하는 태도, 성실함과 근면함은 종종 한국인의 대표적 정신으로 언급된다. 이 소설에서도 가족의 죽음, 삶의 기반 상실, 가난을 견디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고난을 극복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 인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1)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 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평양댁 정민이 학생 봐라. 아버지 몫이 저거 엄마가 군복장수해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노. 위채 학생 둘 가르쳐서 번 돈을 가용에 보태고 열두시 넘이까지 호롱불 켜놓고 자기 공부를 안하나. …또 한 가지, 니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넘고 이기는 길은,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키 쌓는 길이다. 재주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지런키라도 해야제.” (33)

12) “길남아, 봐라. 묵고 살라고 저 통통 부은 얼굴로 장삿길 나서는 거를. 저런 마음을 묵어야 배 안 끓고 사는 기라. 상이군인 저 식구는 은젠 가는 반드시 일어설 끼다. 예전 이집에서 능금 팔며 고생하고 살던 시절을 웃으며 말할 좋은 날이 올 끼라.” (45)

위의 예들은 전후 한국 사회에서 근면과 성실, 인내가 생존 전략이자 사회적 미덕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과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쌓는 길”이라는 어머니의 조언은, 배움과 근면과 성실이 모두 고난을 극복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특히 평양댁 아들 정민이는 부재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노동에 의지하지만, 스

스로 과외를 하여 학비를 충당하고 “열두 시 넘어서까지 호롱불 켜놓고 공부 하는” 근면의 표상으로 제시된다. 이는 전쟁으로 파괴된 삶 속에서도 자기 노력과 성실함을 통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지런키라도 해야제”라는 말은 끈기 있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머니의 말은 전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근면과 성실, 인내라는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다.

“통통 부은 얼굴로 장삿길 나서는” 상이군인 가족의 모습은, 전쟁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상처를 짊어진 사람들이 인내와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통해 재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저런 마음을 묵어야 배 안 굶고 사는 기라”라는 어머니의 말은, 고통을 감내하고 꾸준히 일하는 것이 생존의 필요조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삶을 재건해야 하는 전후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었다. 위의 예들은 생존 전략으로서 고난을 마주하며 성실과 근면, 인내를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당시 한국인들의 가치체계를 잘 보여준다.

13) “상판은 꼭 소도둑 같애도 부지런하고 심성이 무던할 것 같아 이복에서 적수공권으로 피난온 사람이 독한 마음 묵지 았오모 이 바닥서 발 붙이기 여데 쉽겠노마는 저 젊은이사말로 눈발에 알뎀으로 내놔도 굶어 죽지사 았겠군.” 노마님이 증문을 빠져나가는 사내 뒷모습을 보며 한마디 했다.”(135)

14) “그래 부지런하이께 일감이 떨어졌잖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기라. 그 장정이 비 안 젖게 나무 덮어주러 왔을 때 그 통나무 패는 일감을 따내야지 하는 공심을 묵었는지 우쨌는지 모르지마는, ... 그러나 부지런케 남이 좋아할 일을 성심성의껏 해주이께 할때 눈에 들은 기라 공짜 일이 진짜 돈 벌리는 일로 둔갑한 기 아닌가. 사람이란 모름지기 남의 눈에, 그 사람 행실이 참 이쁘다, 이래 보여야 한데이. 그러자모 사람이란 모름지계 정직과 부지런을 제일로 앞세워야 하는기라” 어머니 말씀이었다. (136)

전쟁 이후 피난민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생존은 삶의 태도와도 결부되었다. “상판은 꼭 소도둑 같애도 부지런하고 심성이 무던할 것 같아”라는 말은, 외형적 조건보다 근면성과 성실한 품성을 중시하는 당시 한국인들의 가치관

을 드러낸다. 이북에서 맨몸으로 피난 온 청년이 ‘눈밭에 알몸으로 내놔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함과 끈기를 지닌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당시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곧 당시 한국인들에게 ‘부지런함’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삶의 태도로 인식된 것이다.

14)의 어머니의 말 “공짜 일이 진짜 돈 별리는 일로 둔갑한 기 아닌가. 사람이란 모름지게 정직과 부지런을 제일로 앞세워야 하는 기라”는 이러한 근면의 가치가 개인의 생존 전략을 넘어 그 사회의 공유된 인식으로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비 오는 날 남을 위해 나무를 덮어준 행위는 계산 없는 수고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신뢰와 관계를 낳는다는 인식은 성실한 행위가 곧 자립의 기반이 되는 당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 즉, 부지런하고 정직한 삶이 곧 타인의 인정과 자신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신념이 형성된 것이다.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는 극심한 가난과 상실, 그리고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근면과 성실, 인내를 통해 다시 일어섰다. 근면과 성실, 인내는 전후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생존의 전략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이자 전후 한국 사회를 지탱한 생활 윤리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덕목들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도 깊이 작용하였으며, 현대에도 개인적,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전히 인내와 근면, 성실이라는 정신들이 강조되고 있다.

4) 상부상조의 정신

전쟁 직후 한국인들은 극심한 빈곤과 상실을 경험하며 각자 생존을 위해 힘썼지만, 한편으로는 이웃이나 주변인물들과 인간적으로 연대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소설 속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

15) 다달이 전기세니 수도세니 변소치는 값을 낼 때면 한푼이라도 적게 내려 입싸움이 잦았지만 모두 아등바등 열심히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 집 흥을 저 집에서 살짝 퍼뜨리기도 하며 제 실속은 감춘 채 집 없는 객지살이 설움으로 서로를 다독거리기도 하며 이웃사촌으로 고리를 맺고

있었던 셈이다. (22)

16) 미선이 누나가 우리 집에 불을 빌릴 때는 내게 뺨우물을 지으며 미제 껌을 주기도 했다. 나는 껌도 반가웠지만 미선이 누나가 불이핀 솥 두 쪽을 가져가며 생ս 서너 쪽을 주는 이득을 좇아 누나가 다른 셋방으로 걸음을 돌릴까봐 미선이 누나 우리 집 불피앗심더 하고 스스로 청할 적도 있었다. (24)

17) 문자이모는 어머니 샅바느질 단골손님으로 상원이란 요리집에 인기 있는 기생이었다. … 어머니를 양언니 삼아 언니라고 부르며 일감이 없을 때도 만두나 순대 같은 군것질감을 사들고 자주 놀러와 외로움을 풀다 가곤 했다. … 누나와 길중의 학용품도 더러 사주기도 하였다. (86~87)

18) 내가 서가에 꽂힌 마분지로 싼 책 등의 제목을 기웃거리자 아저씨는 너 책 좋아하나 보구나 하더니 학교에도 못 다니고 신문 배달하는 날을 딱하게 보았던지 무료로 빌려가 읽어도 좋다고 말했다. 웬 횡재냐 싶어. 나는 그날로 소공자란 동화책을 빌려왔다. (93)

19) 평양댁과 어머니는 전쟁으로 지아비를 잃고 생활전선에 나선 미망인으로서의 님은 꼴 상처를 지닌 데다 그 억척스러운 부지런함으로 마당 깊은 집에서는 그 사이가 누구보다 가까웠다. 평양댁은 어머니의 바느질에 필요한 실과 동정감은 물론 한복의 안감 따위를 양키 시장에서 싸게 구입해 주는 친절도 베풀고 있었다. (108~110)

전쟁 직후의 피난민과 서민이 모여 사는 ‘마당깊은 집’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이웃 간의 연대와 상호부조의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셋방살이로 서로의 생활이 밀착되어 있는 이웃들은 “입싸움이 잦았지만 모두 아등바등 열심히 생활을 꾸려나갔다”는 서술처럼, 갈등과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인간적 유대를 형성한다. 미선이 누나가 불을 빌리며 껌을 건네거나, 문자 이모가 우리집에 와서 외로움을 풀고 가거나, 학用品을 사주는 장면, 가난한 길남에게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행위, 평양댁이 어머니에게 실과 옷감을 구해주는 행위는 모두 결핍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이다. 이런 상호부조의 정신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결핍을 메우는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보여준다.

상부상조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은 7월 하순의 물난리였다. 장

맛비로 마당에 물이 들어차 아래채 셋방들이 물에 잠기기 직전인 상황이 되었다. 그때 준호 아버지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마당의 물을 퍼내도록 설득하고, 모두 협동해서 물을 퍼낸 사건이 발생한다.

20) “안되겠구면 모두들 양동이 들고 나서우 바깥 마당으로 물을 퍼내는 도리밖에 방책이 없겠소.” 준호 아버지는 아래채 사람들에게 말했다. 준호 아버지의 당찬 고향에 정태씨가 앞장을 서고 일가족이 따랐다. 어머니와 설레 누나 미선이 누나도 따라왔다. ...“협동을 해야지 일이 쉬워요. 어서 삼 개조루 짜시우. 한 사람은 물을 퍼내고 퍼낸 물을 한 사람은 계단 중간 참에서 전달하고 한 사람은 바깥 마당으로 물을 버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아래쪽에 서시오. ...그 주인 댁 학생들도 여기 와서 거들라고. 너희들은 이 집에서 안 살아 이 물난리의 주인이 어딴고 세든 사람이 어딴어. 같이 도와야 할 게 아냐.” ...“준호 아버진, 어디 혼자 살겠다고 전장터에서 싸웠나요? 이럴 때는 내남없이 발 벗고 나서서 서로 도와야 하우.” 준호 엄마가 작은 소리로 그 말을 받았다. (56~69)

마당에 물이 차오르자 “안되겠구면, 모두들 양동이 들고 나서우”라며 사람들을 이끄는 준호 아버지의 호소는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발현되는 자발적 협동의 정신을 상징한다. 남녀노소가 구분 없이 힘을 합쳐 물을 퍼내는 장면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 계층이나 주인, 세입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같이 도와야 할 게 아냐” “이럴 때는 내남없이 발 벗고 나서야 하우”라는 준호 아버지의 말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삶을 세워야 했던 당시 공동체의 상부상조적 연대 의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소설 속의 이러한 서사는 전후 한국 사회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이 단순한 미덕을 넘어 공동체의 존속과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정신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정신은 오늘날도 IMF 사태나 코로나 상황 같은 국가나 사회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핵심이 되는 한국인들의 정신으로 언급되고 있다.

5) 이념적 갈등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 사회는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이념

의 대립이 일상과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배척하게 만든 사상적 분열의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개인의 생존과 양심, 공동체 연대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선택을 강요하며, 한국인의 내면에 깊은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고, 현재까지도 한국인들은 이념적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 소설에서도 등장인물들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면은 전쟁에서 상이용사가 된 준호 아버지와 정태의 대화이다. ‘반공궤기대회’ 참석을 화제로 한 두 사람의 대화에서 당시 사람들 사이의 이념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21) “박선생님, 오늘 무슨 모임이 있는 모양이디요?”

“낮에 종합운동장에서 ‘개헌안 통과 찬성 반공 궤기대회’가 있나보우. 지난 봄에도 그 비슷”한 행사에 난 빠졌더랬는데 이번엔 꼭 나오라구 저렇게 성화구려.” …

“이 박사 그 양반이 대통령 더 하고 싶어. 그렇게라도 헌법을 고친 게 아닙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앉으면 누군들 쉽게 내놓겠소. 무슨 욕망보다도 권력욕이 무섭다는 건 세계 정치사가 잘 말해주는데. 그 욕망이야 말로 상위 개념이라 자잘한 다른 모든 욕망을 한꺼번에 충족시켜 주니깐요.”

“박 선생님은 그 궤기대회란 데 나가실 작정입니까?”

“문전박대나 당하는 병신들이 그런 대회에나 쫓아다닌다구 누가 우리 식구 생활을 보장해 주우?”

“오직 그 니유 때문예?”

“나도 성깔깨나 있었는데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디다. 전쟁 뒤끝이라 그렇기두 하겠지만 이 자유주의란 세상은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주지 않구 돈으로 사람을 저울질하는 게 너무 심한 것 같긴 하우.”

“말씀 잘 허셨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반공 궤기대회두 그렇디요. 돈으루 사람을 사서 억지 대회를 열다니. 반공? 췌, 반공으루 인민을, 글티 않다, 백성을 꼼짝달짝 못 하게 묶어두구 평생 반토막 나라 제왕 노릇이나 하라지.”

자기네 방으로 들어가려던 준호 아버지가 정태씨의 빈정거림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걸음을 멈추었다. 그분이 쪽마루에 정태씨와 나란히 앉

았다.

“최형은 반공을 싫어하는가 보우. 반공이 왜 싫우?”

어투는 시비조였으나 준호 아버지 목소리는 차분했다.

“한쪽은 반공만 주장하구, 한쪽은 친공만 앞세우니 통일이 어려울 것 같아 해 본 소리라요. 어느 쪽으루든 이 민족은 통일부터 이뤄놓구 봐야 허는데…”

“내 소견으루 반공을 앞세워 선량한 시민을 무작하게 다스리는, 이를 테면 반공 제일주의의 처형이나 고문이나 테러가 아닌. 순수 뜻에서으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승공 쫓기대회는 전쟁 치른 이 시점에서 꼭 필요 하다구 생각하우.”

“극우 반공주의자에게 그런 주문이 통할 것 같시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따지고 보든 극좌 또한 얼마나 많은 인민 을 반동이란 명목으로 처형했수.” …

“최형같은 반골은 어느 체제든 쉽게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깨워주기 위해서두, 또 총들구 직접 싸워 보지 않은 최형 같은 이를 위해서두 반공 정신은 필요하다구 보우.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땅에서 전쟁과 같은 폭력 혁명을 신봉하는 자들은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구 봅니다. 우리 전우가 목숨을 바쳐가며 어떻게 지켜 온 자유입니까. 아직 참다운 자유주의를 제대로 실행해보지 못해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남한의 자유주의는 문제점이 없지두 않지만 말입니다.”

정태씨는 준호 아버지를 쏘아보기만 할 뿐 입을 껴고 있었다. …

“선량한 소시민입니다. 나두 뭐 박선생님 같은 분 앞에서 중뿔나게 내 주장을 펼칠 낯장은 못 됩니다다만 … 어쨌든 이번 전쟁이 반공주의자와 친공주의자를 확실하게 갈라놓은 셈이웨다. 전쟁 전에는 사상적 주의자 외는 그렇게까지 동포를 서루 증오하지는 않았잖습네까.” (128~130)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 사회는 냉전 체제 속에서 ‘반공’이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언행을 통제하였다. 21)에서 “낮에 종합운동장에서 ‘개헌안 통과 찬성 반공 쫓기대회’가 있나보우”라는 준호 아버지(박 선생)의 말은, 당시 국가가 반공을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개헌안 통과’와 ‘반공 쫓기대회’를 같이 묶은 것은, ‘반

공'이 단순한 이념적 구호를 넘어 당시 정권의 권력 유지 논리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박사 그 양반이 대통령 더 하고 싶어. 그렇게라도 헌법을 고친 게 아님네까”라는 구절은 반공 이념이 정치권력의 연장과 결합된 현실을 보여준다. 즉, 반공주의가 국가적 신념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권력욕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장치로 작용했음을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예에서 준호 아버지와 정태(최형)는 동일한 전쟁 경험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신념을 보여준다. “우리 전우가 목숨을 바쳐가며 어떻게 지켜온 자유입네까”라는 준호 아버지의 말은 전쟁의 상처를 반공 이데올로기의 도덕적 근거로 삼는다. 그는 “이 땅에서 전쟁과 같은 폭력혁명을 신봉하는 자들은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고 단언함으로써 자유의 가치를 반공주의와 동일시하고, 그와 다른 생각을 ‘폭력’과 ‘혁명’으로 규정한다. 반면 정태는 “반공? 췌, 반공으루 인민을 꼼짝달싹 못 하게 묶어두구 평생 반토막 나라 제왕 노릇이나 하라지”라고 냉소적으로 응수한다. 그는 반공이 국가의 통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음을 비판하며, 전쟁 이후 권력과 이념의 결합을 비판한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보이는 이념적 갈등은 “어쨌든 이번 전쟁이 반공주의자와 친공주의자를 확실하게 갈라놓은 셈이웨다. 전쟁 전에는 사상적 주의자 외는 그렇게까지 동포를 서루 증오하지는 않았잖습네까.”라는 정태의 말을 통해, 당시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골도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양분한 사건이 되었다. 전쟁 이후 ‘반공’과 ‘자유’, ‘민주주의’와 ‘통일’이라는 말은, 한국인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관념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국가의 존립과 개인의 생존이 동일선상에 놓였던 한국전쟁의 경험은, 이념을 곧 개인의 ‘신념’이자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문화를 형성했다. 이렇게 전후 한국인의 삶 속에 내면화된 이념의 갈등은 세대를 거치며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현대 한국 사회의 가치 판단 구조 속에 깊이 작동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소설 『마당깊은 집』을 통해 한국전쟁 직후의 시대상 속에 드러난 한국인의 관념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작품 속에는 전통사회에서 이어져 온 장자중심주의, 교육열, 고난 극복 정신으로서의 근면, 성실과 인내, 그리고 상부상조의 정신, 전쟁 이후의 이념적 갈등 같은 당시 한국인들의 정신적 가치가 잘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그 시대만의 정신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정신적,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원적 관념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마당깊은 집』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유지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 상승, 성실과 노력의 미덕, 상부상조와 이웃 간의 연대 같은 가치들이 어떻게 한국인의 내면적 삶의 원리로 작동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문화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장자중심주의나 교육열은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근면, 성실과 인내 그리고 상부상조 정신은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삶과 사회적 윤리를 읽어내는 단서가 된다. 또한 전쟁 이후 형성된 이념적 갈등은 한국 현대사의 집단적 기억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분열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적 맥락을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는 단순한 문화 지식의 습득을 넘어 한국인의 삶을 규율하는 정신적 구조와 가치의 연속성을 이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념문화의 이해는 현대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정서, 그리고 이념적 대립의 근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함으로써,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마당깊은 집』은 한국 사회에서 공유된 지식과 한국인들의 관념과 정서, 비판적 사고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문화 리터러시 교육 자료로서 그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김원일, 『마당깊은 집』, 문학과지성사, 2002.

2. 논저

공하림·손혜진, 「문화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에 관한 고찰」, 『문화와 융합』 42(5),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5(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김영순·박지선, 「민주시민교육과 미디어 문화 리터러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1(1),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6.

김완실, 「한국문학 작품을 통한 문화 문식력 향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8.

김혜정·윤영, 「문화 리터러시를 통한 문학 텍스트 해석 : 화본소설 〈玉堂春落難逢夫〉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6), 한국 문화융합학회, 2021.

김혜진,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실행 연구」, 『문화와융합』 43(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배윤정, 「외국인 학부생들의 글쓰기 활동을 통한 문화 리터러시 교육」, 『문화와융합』 44(1),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박인선, 「문화문식력 향상을 위한 문화코드 연구」, 『동악어문학』 82, 동악어문학회, 2020.

오지혜, 「한국어 학습자의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위한 문학 제재 연구 - 현대시 작품을 중심으로-」, 『시학과언어학』 18, 시학과언어학회, 2010.

윤여탁,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이해영,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외국어교육』 7(2), 한국의국어교육학회, 2000.

정지현, 「포토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리터러시 경험의 의미」, 『교육문화연구』 23(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조항록,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최재석, 『한국 초기사회학과 가족의 연구』, 일지사, 2002.

Hirsch, E. D.,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3. 기타 자료

<https://www.news1.kr/amp/society/education/5924444>

(검색일: 2025.11.14.)

<Abstract>

Reading *Madang Gipeun Jip* as a Resource for Korean Cultural Literacy Education
- Focusing on Korean Ideational Culture -

Cha, Yun-Jung

This study serves as a preliminary exploration for utilizing the novel *Madang Gipeun Jip* as an instructional resource for Korean cultural literacy education. It analyzes the forms of Korean ideational culture embodied in the text. Set in the chaotic aftermath of the Korean War, the novel realistically portrays family and community life through the eyes of the young protagonist, Gil-nam, revealing diverse aspects of Korean ideational culture shaped at the intersection of traditional values and emerging modern changes.

Based on an analysis focused on the characters and events in the novel, this study identifies primogeniture-centered familism, fervor for education, the spirit of diligence, sincerity, and perseverance, the ethic of mutual aid, and ideological conflict as major elements of ideational culture. These cultural elements not only served as the mental foundation that enabled Koreans to endure the historical tragedy of war but also continue to function as meaningful ideational component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Cultural literacy education through literary texts is effective in enabling learners to grasp Koreans' ways of thinking and value systems in an integrated manner within their cultural context. By revealing the ideational culture formed at the intersection of individual survival and communal ethics in the immediate post-war era, *Madang Gipeun Jip* provides learners with an opportunity to deeply reflect on the internal

logic and emotional structure of Korean culture. Thus, the novel holds significant value as a resource for cultural literacy education.

* Key Words: *Madang Gipeun Jip*, Cultural Literacy, Ideational Culture, Korean Culture, Literary Texts

· 논문투고일: 2025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11일 · 게재결정일: 2025년 11월 26일
